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제38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일 시	2022. 9. 2.(금) 16:00	장 소	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
참석위원	김은상(의장), 전재욱, 한상만, 김윤배, 박동희, 김중환, 양경아, 장필규, 최유선, 전미희, 윤영선 평의원 (이상 총 11명)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 박형준 계장, 이새롬 직원 배석		
불참위원	서용원 평의원 (이상 총 1명)		

1. 개 회

- 김은상 의장이 총 12명의 평의원 중 11명이 참석하고 1명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제38차 대학평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8차 대학평의위원회 안건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1건임을 확인하고, 전차 회의록을 묵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김은상 의장이 추가적인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지난 제37차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질의하였던 입학 취소 사유의 개정과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입학 취소와 관련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교육부에서 2020년에 제정한 입학 취소와 관련된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다. 아울러 입학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발생하는 특이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하다.
- 사회과학연구원에 소속된 메타사회연구소의 연구 분야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메타 가치를 기반으로 한 융합 콘텐츠, 메타 데이터 등을 포괄하는 학문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다.
- 한상만 위원이 지난 제37차 대학평의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급여 인상에 관한 경과를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2022년 임금에 대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하다.

2.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 김은상 의장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사항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이새롬 직원이 회의자료 중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부분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최유선 위원이 약학대학의 학기당 수강학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이새롬 직원이 약학대학의 경우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강하는 경우가 많으며, F 학점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학기당 수강학점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말하다.

- 최유선 위원이 2+4년 학제 하에서 입학 시 인정학점을 얼마나 부여받았었는지 질의하고, 이새롬 직원이 전적대학의 2학년 수료학점에 따라 인정학점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 윤영선 평의원이 약학대학 학생의 복수전공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박형준 계장이 약학대학은 타학과에 대한 복수전공과, 타학과에서의 복수전공이 모두 제한된다고 말한다.
- 한상만 평의원이 휴학 없이 6년을 모두 재학하는 경우, 추가학기를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이새롬 직원이 수료학점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학기를 등록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을 모두 충족한 경우 추가학기를 등록할 수 없다고 말한다.
- 김은상 의장이 2+4년 학제 하와 달리 6년 학제에서 편입생이 몇학년으로 입학하는지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6년 학제 하에서는 편입생이 아닌 신입생 1학년으로 입학한다고 말한다.
- 김은상 의장이 약학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학위명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추후 확인하여 답하기로 하다.
- 한상만 평의원이 2+4년 학제가 아닌 6년 학제로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6년에 걸친 교육과정을 통해 의약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되며, 전미희 평의원이 해외대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 학제의 장단점이 있다고 말한다.
- 이새롬 직원이 회의자료 중 소재부품융합공학과 모집단위 신설 반영 부분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김은상 의장이 소재부품융합공학과 학과명의 의미에 대해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삼성전기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전용 학과로서 전자전기공학, 소재공학, 화학공학 등을 교육하는 학과라고 말한다.
- 윤영선 평의원이 재직중 수업에 참여하는지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3일 정도 본교에서 수업에 참여하며, 나머지는 근무지에서 수업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 윤영선 평의원이 학업 수행에 있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추천, 입학시험 등을 통해 일정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 학과 차원에서 교육 수준 또한 고려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 한상만 평의원이 정원 외 학과인지, 그리고 교수진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정원 외 학과이며, 전자전기공학,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등의 교원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 박동희 평의원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출신 학생들에 대해 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는 학과라고 첨언하다.
- 김은상 의장이 대학의 산학협력과 관련되는지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회적배려 등에 대한 대학의 역할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삼성

전기만을 대상으로하는 소재부품융합공학과와는 다른, 일반 산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배려 학생에 대한 재직자전형 학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다.

- 최유선 평의원이 삼성전자공과대학(SSIT)과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SSIT는 사내대학에 대한 위탁교육이기에 삼성전자공과대학 명의의 학위를 수여받는 등 차이가 있다고 답하다.
- 한상만 평의원이 소재부품융합공학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화학 등의 학문분야를 통해 기초소재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 김은상 의장이 일반 입시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과 삼성전기 추천을 통해 입학한 학생간 이질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말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전공 수업에는 함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말한다.
아울러 공정의 측면에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적절한 조율을 통해 조심스럽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 최유선 평의원이 출신 고교나 전형에 따라 구분하기보다 학업에 대한 의지 측면에서 같은 학우로서 포용할 수 있으며, 삼성전기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하다.
- 한상만 평의원이 경영전문대학원의 계약학과 MBA 사례를 바탕으로, 우수학생 선발, 엄정한 학사관리 등을 통해 매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말한다.
- 이새롬 직원이 회의자료 중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폐지사항 반영 부분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김은상 의장이 융합의과학과의 일반학과와 계약학과 중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계약사항의 종료에 따라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사항이라고 말한다.
- 한상만 평의원이 박사과정에 계약학과가 존재하는지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박사과정에 계약학과가 존재함을 확인하다.
- 이새롬 직원이 회의자료 중 교육부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부분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LINC사업은 1단계 LINC, 2단계 LINC+, 3단계 LINC 3.0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건이라고 하다.
- 김윤배 평의원이 적용일자가 도과한 심의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다.
- 김은상 의장이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에 대한 심의 안전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대학에 사안에 대한 수정/재심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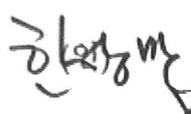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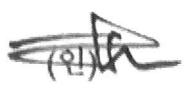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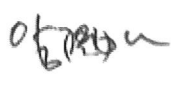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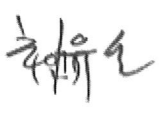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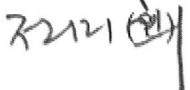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부결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부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실제 규정심의위원회, 교무위원회를 거쳐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항의 시행일자가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 박동희 평의원이 심의는 의결을 위한 절차로, 따라서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절차적 하자라고 말한다.
- 한상만 평의원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 일정 조정을 제안한다.
- 최유선 평의원이 규정이 시행됨에 있어 다양한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일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실제로 반영되는 여부가 중요하리라 말한다.
- 박동희 평의원이 대학은 모든 사안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경직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 이새롬 직원이 회의자료 중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사항 반영 부분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 윤영선 평의원이 동일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설로 표기하는 부분을 지적한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실질적으로 학과 단위에서 변경으로 신청하는 경우 변경으로, 폐지 후 신설로 신청하면 신설/폐지로 적용한다고 답하고,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 이를 표현에 적정히 반영하기로 하다.
- 한상만 평의원이 본 개정(안)에 포함된 경영전문대학원의 사안 중 실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학과가 신설/폐지로 표기되어 있다고 첨언하다.
- 전재욱 평의원이 IT컨설팅학과가 삭제되는데 이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경과조치에 대해 질의하고, 이새롬 직원이 IT컨설팅학과 재적생의 경우 소속을 유지하여 졸업이 가능하고, 희망하는 경우 정보통신대학원 내 타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였다고 말한다.
- 양경아 평의원이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으로 이동된 13명 정원의 배분에 대해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본교 일반대학원은 총정원제를 적용하기에 특정 학과로 배분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 이새롬 직원이 회의자료 중 의과대학 유급 및 절대평가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부분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 한상만 평의원이 의과대학 외 타 단과대학에서도 유급을 하는 경우 특정 성적 이상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유효로 할 수 있지 않을지에 대해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사범대학, 의과대학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급을 하는 경우에도 특정 성적 이상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을 유효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급의 취지 상 유급을 하는 경우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한다고 하다.

- 최유선 평의원이 유급을 하는 경우에도 특정 교과목의 성적을 유효로 하는 경우, 계속해서 재학하며 낮은 성적의 교과목을 삭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우려가 있으리라 말한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교무처와 협의하여 차기 회의에서 답하기로 하다.
- 이새롬 직원이 회의자료 중 부설연구기관 변경 반영 부분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테크놀로지과민주주의연구소의 학문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이새롬 직원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한다.
- 전미희 평의원이 무배출형환경설비지원센터에서 환경포렌식연구소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해당 연구소의 연구 분야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함이며, 센터와 연구소간 차이는 없다고 말한다.
- 최유선 평의원이 연구소 신설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여부와, 따로이 지원이 없는 경우에 협의체로서 기능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연구소는 자활 체제이기에 재정적인 지원은 없으며, 교원이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사업 등에 출전하는 단위조직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 김은상 의장이 본 심의 사안에 대한 기타 의견이 없는지 묻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3. 기타사항

- 윤영선 평의원이 총장 선출에 대한 절차와 관련하여, 동문으로서 유능한 총장을 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타대학의 운영 사례를 예로 들어 폭넓은 인재 풀을 바탕으로 총장을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 제언하다.
- 김윤배 평의원이 삼성이 대학경영에 참여할 때 총장 선출권을 법인으로 이전한 바 있으며, 현행 총장 선출제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 윤영선 평의원이 성대가 다시 약진하기 위해 폭넓은 인재 풀을 바탕으로 명망, 정치력, CEO 등의 역량을 지닌 총장을 선출할 수 있으리라 말한다.
- 박동희 평의원이 재단의 경영 참여와 더불어 총장 선출권을 법인으로 위임하였으며, 다양한 총장 선출제가 있으나 우리 대학을 명문 사학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임명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 김중환 평의원이 각 대학별로 총장 선출 과정에 있어 대부분의 대학이 총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대학이 그동안 축적한 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 김은상 의장이 추가 질문 사항이 더 없음을 확인하고, 18:0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3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서용원	(인)	한상만	 전재욱		
김윤배		김은상	 (인)		
박동희	 (인)	김중환	 (인)		
양경아	 (인)	장필규	 (인)	최유선	
전미희	 (인)	윤영선	 (인)		